

무력이 아닌 제단의 능력으로

본문: 창세기 26:23-35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V3GJhhoPW1g?si=XOq1Byogu3eTtp_R(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극심한 흉년 속에서 순종으로 백 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곧바로 세상의 시기와 위협에 직면합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군사력을 앞세워 이삭을 강제로 쫓아낸 것입니다. 억울하게 밀려난 이삭은 당장 먹고살기 좋은 세상의 명당 대신, 언약의 장소인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방어할 울타리를 치거나 마실 우물을 먼저 파지 않고,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을 지키려고 세상과 똑같이 칼을 들고 맞서 싸우는 대신, 내 힘을 빼고 영적인 복을 회복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결단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잃어버린 제단의 능력이 회복되자, 이삭을 무력으로 내쫓았던 아비멜렉 왕이 스스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인간의 군사력이 기도의 제단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이 제단의 능력은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제단에 친히 오르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박살 내시고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분노의 칼을 빼 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브엘세바로 나아가 무너진 기도의 제단, 예배의 자리를 가장 먼저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쌓는 제단의 깊이가 곧 우리가 누릴 복의 깊이가 되며,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의 위협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진짜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말씀 관찰]

1.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나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삭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창 26:25)
2.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후,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창 26:28)

[삶의 적용]

1.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한 수고를 빼앗기고 억울함을 겪을 때, 나는 세상의 방식(헐기와 다툼)으로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영적인 제단을 먼저 쌓고 있습니까?
2. 세상의 거대한 무력 앞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가장 먼저 내 힘을 빼고 회복해야 할 '브엘세바의 제단(예배와 기도의 자리)'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오늘의 기도]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세상과 다투지 않고, 내 삶의 브엘세바에서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가장 먼저 회복하여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